


| | | |
|---|------|--|
|  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보도자료 | 보고서명 |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|
| | 문의 |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(02-3771-0631, pkkim@kcmi.re.kr) |

- 미국의 GENIUS법이 제정되고,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
 -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, 통화 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하며, 디지털 자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

-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무결성의 초석이며 의도된 페그를 유지하고 환매 요청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됨
 - 미국의 GENIUS법은 통화와 예금, 단기 국채, 환매조건부채권, 정부 머니마켓 펀드 등을 준비자산으로 허용하고 있으며, 준비자산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을 도입
 - EU의 MiCA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준비자산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환매가 가능하도록 준비자산의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도입
 - USDT와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
 -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,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규율체계도 수립되어야 함
 - 스테이블코인의 지불 안정성과 가치저장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준비자산 요건과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상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함

-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무위험 초단기채권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데에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음
 -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단기 국고채가 도입되지 않고 있음
 -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,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,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
 - 전체 국고채 잔액 중에 초단기 경과물 국고채의 비중은 평균 1.8%에 불과
 - 재정증권은 탄력적인 발행에 제약이 존재하고, 연말에 잔액 상환을 해야 하는 특성으로 인해 준비자산의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움
 - 통안증권은 발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, 초단기물의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

-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검토에 있어, 단기 국고채 도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준비자산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
 - 단기 국고채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기능 이외에도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, 정부의 조달비용을 절감하며,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
 -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
 - 시장 수요에 부합하고 글로벌 정합성에 맞는 단기 국고채 상품 구조의 설계 및 효율적인 국채 관리제도도 마련해야 함